

SUNBO NEWS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7년 5월 15일

vol. 160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주요소식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 일행 본사 방문 친환경 선박 제조를 위한 지원 방안 논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우리 회사의 생산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주 장관의 이날 방문은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를 직접 시찰하며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우리 회사는 국제해사기구인 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수년 전부터 친환경 선박연료인 LNG 연료 공급시스템 기술 개발에 투자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다대2공장에 LNG 관련 유니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납품 전 성능검증시험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었다. 이날 주형환 장관이 가장 먼저 찾은 곳 역시 다대2공장이었다. 주형환 장관은 다대2공장의 High Pressure Pump Skid(고압펌프시스템) 및 Fuel Gas Supply System(LNG연료추진시스템),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부분재액화시스템), LNG Compressor Skid(가스압출시스템) 등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과 생산설비를 시찰하고 본사로 이동하였다.

본사 도착 후 홍보관을 둘러보며 주요 사업현황 및 다대1공장 모듈유니트 현장을 살폈고, 3층으로 이동하여 주요 인증 및 수상현황, 복지지원 현황을 소개받았다. 이어 자체 연구소를 찾은 주 장관은 “조선경기가 불황이지만 선보공업의 기술현황을 직접 둘러보니 무궁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LNG, 평형수 등 신사업에 활발히 투자하고 관련된 기자재들을 많이 생산하는 선보공업의 기술력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해외시장 확대 및 국내 선박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 장관은 “선보공업 가족이 똘똘 뭉쳐서 조선 불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지각색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하여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회사는 올해 상반기 공채를 통해 조선산업 퇴직인력 등을 적극 영입하여 연구개발 및 해외 마케팅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차세대 선박용 기자재 개발과 해외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형환 장관의 이번 방문은 우리 회사와 같은 조선기자재 업계의 지역우수기업이 지역인재들을 육성하는 내실 있는 기업으로서 더욱더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회사 소식

극저온 시험인프라 공동 활용 및 연구 개발 추진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14일 파라곤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극저온 시험인프라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친환경 조선기자재 기술 인프라를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연구개발을 위한 극저온 시험설비의 공동 활용을 희망하는 우리 회사와 같은 조선기자재기업

및 시험인증센터 등은 향후 LNG연료추진선박과 병커링 등의 기자재 시험인증을 위해 고압(300 bar 이상), 극저온(-196℃), 상변화(액체-기체-액체) 시험이 가능한 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통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 해양 환경 규제의 강화와 LNG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LNG 연료추진선박과 병커링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은 “조선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LNG시장이 활성화되면 조선경기는 물론 조선기자재기업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문

인도 오일텍 엔지니어링 비벡 디립 부사장 일행 대형 패키지 제조 기회 마련



지난 4월 28일, 인도 오일텍 엔지니어링의 글로벌사업 총괄 본부장인 비벡 디립(Vivek Dilip) 부사장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오일텍 엔지니어링은 인도 최대의 조선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 기본·상세 설계, FEED 엔지니어링 및 프로젝트 매니징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VLCC(초대형원유운반선)를 완전 개조하여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로 건조하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진행 중이다. 오일텍 엔지니어링이 현재까지 수행한 FPSO 개조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만 해도 3000억~5000억 원에 이른다.

이날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 디립 부사장은 먼저 자사의 엔지니어링 및 프로젝트 매니징 역량을 소개했다. 오후에는 다대2공장의 테스트 설비와 구평1공장 제조설비 현장 견학을 통해 조만간 추진할 3~4개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적 투자 및 제작의 협업파트너로서 우리 회사의 역량을 확인했다. 오일텍 엔지니어링의 이날 방문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향후 프로세스 모듈과 유틸리티 모듈 등 대형 패키지 제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해외 영업

도쿄 가스텍 2017 행사 참여 LNG시장의 성장 가능성 확인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지바 현에서 개최된 'Gastech 2017 Tokyo' 행사에 참석했다. 가스텍은 약 1년 반마다 개최되는 국제 가스산업 컨퍼런스 겸 전시회로, 글로벌 메이저 오일 및 가스회사, 조선사, 선급, 기자재 업체 관계자들 등 전 세계 600여개 가스산업 관련 업체의 관계자 약 25,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국제 가스행사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장기화되는 조선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LNG 분야에서만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각종 해외 리포트에서도 LNG선의 발주가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봐 글로벌 수주전 역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산업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보로서 그 의미가 크다.

LNG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듯, 'Gastech 2017 Tokyo' 행사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도 참가하여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LNG선, 부유식 LNG 생산·저장설비(FPSO),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FSRU) 등을 선보였다.

우리 회사는 LNG 관련 시스템/패키지 사업 및 On/Offshore Plant Business의 Modularization 사업 홍보 기회를 가졌다. 독립 부스를 마련하여 전시가 시작된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해외 고객사 및 선주사들에게 우리 회사의 LNG FGSS를 비롯한 육상 및 해양 플랜트 모듈 사업을 홍보하였다. 영업 및 기술 담당자들은 합심하여 우리 회사의 제품 및 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현재 수행 중인 LNG FGSS의 협력업체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 중국에 소재하는 여러 부품업체들과 미팅을 가지고 차후 비즈니스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Gastech 2017 Tokyo' 행사가 지난 싱가포르 가스텍에 비해 규모가 컸으며 일본 현지의 에너지 관련 기업을 비롯한 육상 및 해양 플랜트 비즈니스의 EPCIC(설계·구매·제작·운송·설치)를 수행하는 대형 업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현황을 전했다. LNG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중론에는 이견이 없으나, 현재 부족한 LNG 관련 설비(LNG Bunkering Facility) 개발에 대해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이 전해온 현 추세이다. 해외영업부 임직원들은 기존의 대형업체들도 FULL LNG Scale이 아닌 Small & Mid Scale LNG에 관심을 보이며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행사 참여를 계기로 LNG시장의 국제적인 판도를 경험한 우리 회사는 기존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서 끊임없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선보라는 브랜드를 세계시장에 알리나갈 계획이다.

회사 소식

안전기원제 실시 전사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한 의지 제고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30분, 본사공장을 시작으로 전사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실시되었다. 이번 안전기원제는 앞서 5월 1일 거제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인명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教師) 삼아,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자는 최금식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다.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안전사고는 무려 31명의 사상자를 내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골리앗 크레인이 구조물 해체를 위해 이동하던 중 타워크레인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을 수백 수천 번 강조해도 모자라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안전메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민간부분에서도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다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안전기원제는 다대1,2,3공장, 선보유니텍(주) 구평, 구평1공장에서 각 공장의 공장장, 생산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HSE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정성으로 마련한 술과 과일 등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무사고를 기원하는 진심을 담아 천지신명에게 제를 올렸다.

다대1공장의 안전기원제에 참석한 최금식 대표이사는 거제도에서 발생한 크레인 안전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조선산업의 불황이 지속화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치명적이라며 "조선산

업의 불황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타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2015년 전사적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2016년 '무재해 선포식'을 통한 무재해 실천 서약서 작성으로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주간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이날 안전기원제 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임직원의 철학이 담긴 노력의 하나로, 전사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회 공헌

'애아원' 놀이동산 나들이 지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 다해



어린이날을 앞둔 주말인 지난 4월 29일, 통도환타지아 입구에 밝은 표정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 아이들은 사회복지법인 애아원의 원생들로, 이날은 우리 회사의 지원으로 놀이공원을 찾은 것이다. 1년 내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회사는 애아원과도 인연을 맺고 원생들의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이들이 하루 신나게 놀고 즐길 수 있도록 놀이공원 나들이를 지원하게 됐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과 점심 도시락을 제공한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직접 참가하여, 인솔 교사를 도와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며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에 설렘이 가득했다. 자유이용권을 이용해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마음껏 타고 친구들과 야외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등 모처럼의 나들이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날 줄을 몰랐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한 사람당 아이들을 둘씩 맡아 인솔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는 아이들의 도움도 컸다. 큰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어린아이들을 챙기고, 또 어린아이들은 큰 아이들의 말을 잘 따라준 덕분에 이날 나들이는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즐겁게 웃고 즐기면서 놀다 보니 어느덧 하루가 다 지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하루 종일 웃음꽃 떠날 줄 모르던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그새 정이 든 것인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직원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 봉사자들과 헤어질 때면 다시 못 볼 것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많이 섭섭해 한다고 인솔교사들은 말했다. 이대현 사원은 "아이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밝고 말도 잘 따라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애아원을 찾아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봉사자들의 참여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법인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동행할 계획이다.

기획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찾을 만한 부산의 공원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일들이 많은 가정의 달 5월. 신록이 산하를 푸르게 물들이고 충만한 봄기운에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쉽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이 축복받은 계절, 아이 손잡고 부모님 모시고 찾아갈 만한 부산의 공원들을 소개한다.

• 부산시민공원: 다양한 체험 및 문화행사 가득



부산시민공원은 지난 1950년부터 2006년까지 주한미군기지 사령부 산하 하야리아 부대가 있던 부지에 개장한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이자, 기억(Memory), 문화(Culture), 즐거움(Pleasure), 자연(Nature), 참여(Participation) 5개 활동주제로 조성되었으며, 자연공원을 표방하는 만큼 공원 내 97종 85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싱그러움을 더하고 부전천과 전포천이 흐른다. 공원역사관과 공원안내소, 주차장(902면), 카페(3개소), 편의점(2개소), 화장실(22개소)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찾기 좋은데, 분수(4개소)와 너른 광장(6개소), 어린이놀이시설(9개소)은 특히 시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5월에는 한 달 내내 부산시민공원 개장 3주년 기념 전시 <군용지프차 야외전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 달이 지나가기 전 가족과 함께 꼭 한 번 들를 것을 추천한다.

• 성지곡수원지: 편백나무숲 피톤치드에 몸도 마음도 에너지 충전



부모님과 함께라면 성지곡수원지를 추천한다. 성지곡수원지는 1909년 9월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상수도원의 수원지이다. 어린이대공원 내 위치한 이곳은 8, 90년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자주 찾던 곳으로, 부모님과 산길을 올라 수원지를 바라보면 옛 추억이 다시금 떠오를 것이다. 지금은 성지곡수원지 주변의 삼나무와 편백나무 숲이 유명세를 타며 옛날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누리고 있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속 삼림욕장은 워낙 넓어서 여유롭게 걸으며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편백나무 숲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가족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피톤치드를 흠뻑 느끼면,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다. 가끔은 시끌벅적한 도심에서 벗어나 가족과 조용히 숲길을 걷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삼락생태공원: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의 향연



삼락생태공원은 사상구 엄궁동에서부터 삼락동 강서낙동대교까지의 둔치지역으로, 낙동강하구 4개 둔치 중 가장 넓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습지, 철새먹이터, 잔디광장, 야생화단지, 자전거도로, 산책코스, 오토캠핑장, 수상레포츠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인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찾기 좋다. 삼락생태공원의 자랑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사계절 다양하게 피어나는 꽃. 봄철에는 '낙동계방 벚꽃길'이 열려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절경을 자랑하고, 여름이면 연꽃단지와 야생화 단지에서 각양각색의 연꽃 무리와 루드베키아가 피어난다. 가을이 되면 공원은 다시 한 번 색색의 코스모스로 옷을 갈아입는다. 최근에는 여름마다 열리는 국제 락페스티벌을 계기로 젊은 층에서도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안전

인력 운반 작업의 재해예방

날씨가 따뜻해지고 식곤증이 생기는 5월. 근무시간에는 집중력이 흐려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인력 운반 작업은 부주의하기 십상이라 그만큼 안전사고의 예방이 필요하다. 인력 운반 작업의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해 두자.

1 인력 운반 작업(Manual Handling Operations)이란?

운반물을 손이나 인체의 힘에 의해 이동하는 작업이다. 운반 차량 등에서 내리기 작업 또는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작업도 포함된다.

2 운반 재해 예방의 기본원칙

- 가. 작업공정을 개선하여 운반의 필요성이 없도록 한다.
- 나. 운반 작업을 줄인다.
- 다. 운반 횟수(빈도) 및 거리를 최소화, 최단거리화 한다.
- 라. 중량물의 경우 2~3인이 운반하도록 한다.
- 마. 운반보조 기구 및 기계를 이용한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가.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매년 운반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검정합격폼)를 지급한다.
- 나.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작업환경에 맞춰 반드시 착용한 후에 운반 작업을 수행한다.
- 다. 작업자는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운반안전교육을 받고, 이를 항상 실천한다.

교육

원가의 이해 및 절감방안 교육



우리 회사는 4월 27일 본사 대교육장에서 과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원가의 이해 및 절감방안'이라는 주제의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M IMPACT C&C' 수석컨설턴트이자 'DQS Korea' 선임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상운 수석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원가절감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우리 회사가 이미 고급 단계 수준으로 원가절감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이라고 진단한 김상운 수석컨설턴트는 원가절감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수익창출 원리와

직무결산의 이해, 현재 우리 회사의 재무 현황에 대해 강의했다. 더불어 과장급 이상의 직급은 선보의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서 원가절감 실행방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특정 임직원이 아니라 전 계층이 이익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원하는 이익창출 및 원가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전 직원이 함께 동참하여 원가절감의 변동비(재료비/수선비/소모품비/고객 Claim/기타 통제가능경비) 저감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43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5점 만점에 4.6점을 받을 만큼 직원들의 반응도 좋았다.

방문

2017 희망이음 프로젝트 대학생 방문단



지난 4월 21일, '2017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학생 기업 탐방단이 우리 회사를 찾았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기업의 실정을 지역 청년 및 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인재와 우수기업의 채용을 연계하는 데 일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우리 회사를 방문한 탐방단은 조선 관련 학과 대학생 30명과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사업팀 외 관련 담당자 8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진행된 탐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주현 단장의 격려사와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영찬 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리 회사 경영지원팀 서재욱 상무 및

기획팀 김청옥 상무와 대화의 시간, 구평1공장 공장 견학과 기념촬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탐방단은 조선 관련 전공자들로, 우리 회사 방문은 향후 진로 선택 시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등 전공 관련 분야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의미 있는 기회였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인재와 상생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문

현대공업고등학교 명장공방 학생 기업탐방



현대공업고등학교 명장공방 고등학생 11명과 지도 교사 3명, 명장 1명이 4월 28일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이날 기업탐방은 현장 견학을 통해 명장공방 학생들에게 UNIT 공정과 의장의 특성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우수기업인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한 자리로, 현대공업고등학교 이동섭 명장과 최금식 대표이사 뜻을 모아 진행하게 되었다.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방문 일정에 따라 탐방단은 먼저 선보공업 대교육장에서 기획팀 김청옥 상무를 만나 조선 산업과 선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김청옥 상무는

기술 기반의 이러한 인재들이 조선산업 현장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이후 탐방단은 선보유니텍 구평1공장으로 이동하여 이청수 이사와 김태현 과장의 안내로 현장을 견학했다. 대형 모듈 유니트의 실체를 직접 보고 이해해볼 수 있었던 공장 견학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던 일정이었다.

탐방단을 이끈 이동섭 명장은 교실에서 공부한 내용을 현장 곳곳을 돌며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뜻깊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 임재호(5.03) 김병훈(5.06)
 - 김태호(5.07) 서윤석(5.14)
 - 성재경(5.14) 소터(5.14)
 - 김진형(5.24) 최홍렬(음4.17)
 - 최경호(음4.19)
- ☑ 다대1공장
 - 최광현(5.07) 김명주(5.08)
 - 권두철(5.10) 안태주(5.10)
 - 차성오(5.13) 허현(5.13)
 - 심성섭(5.16) 정수용(5.16)
 - 두홍(5.28)
- ☑ 다대2공장
 - 라시드백(5.01) 황학기(5.04)
 - 노창근(5.06) 이종구(5.06)
 - 김도윤(5.09) 문투(5.09)
 - 박병달(5.12) 김종성(5.16)
 - 안토대디(5.17) 박상주(5.21)
 - 이용수(5.21) 김남석(5.23)
 - 원종면(5.23) 신용기(5.29)
- ☑ 다대3공장
 - 지기환(5.20)
- ☑ 구평1공장
 - 신채식(5.01) 신평식(5.01)
 - 김형기(5.02) 장성원(5.03)
 - 김준호(5.05) 김범준(5.11)
 - 정병화(5.11) 문기철(5.12)
 - 주영임(5.14) 강석훈(5.15)
 - 김이만(5.15) 최정숙(5.15)
 - 홍자령(5.15) 김정학(5.18)
 - 김범룡(5.19) 권희준(5.23)
 - 박부영(5.24) 김대오(5.25)
 - 예성용(5.26) 이상훈(5.26)
 - 방재성(5.27) 이재근(5.28)
 - 이정훈(5.31)
- ☑ 구평공장
 - 김한태(5.05) 이황(5.05)
 - 김정식(5.20) 김주환(음4.09)
 - 안철순(음4.18) 이원규(음4.25)
- ☑ 영암공장
 - 김효희(5.17) 인드르짓(5.27)
 - 친타나(5.28) 오충석(음5.09)



입사 기념일

- ☑ 본사
 - 고동욱(5.01) 박상계(5.01)
 - 최재호(5.02) 권순현(5.06)
 - 김영민(5.12) 박기덕(5.14)
 - 박문염(5.17)
- ☑ 구평1공장
 - 현재구(5.19)
- ☑ 구평공장
 - 김건우(5.01) 양승현(5.12)
 - 민병철(5.19)
- ☑ 영암공장
 - 김덕현(5.02)